

김종인 외면에 힘 안 실리는 안철수... 기지가 커는 유승민

'야권 재편' 깃발 든 안철수...국민의힘 합당 선 그어 유승민, 사무실 내고 대선 채비...김종인 참석 눈길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숨죽이고 있던 예비 대선 주자들까지 연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찍이 재보선 분위기를 달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수도권 민심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좌우할 수 있어, 야권 '거물급'의 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가장

먼저 '야권 재편'의 깃발을 들었다. 그는 지난 6일 국민미래포럼 초청 강연에서 "혁신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 세력들의 모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연대의 뜻을 비쳤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간 통합의 수순으로 통상적으로 이뤄져온 합당은 이번만큼은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안 대표는 "단순하게 두 야당이 합치는 것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엔

충분하지 않다"면서 "더 많은 범 야권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합의하고 거기서 여러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안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대표의 야권 플랫폼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 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일부 의원들이 안 대표 이야기에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관심이 없다"고 냉랭한 반응을 보인 상황에서 당 내 의원들이 안 대표의 제안에 응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국민의당의 독자적 플랫폼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가운데 야권 대선 후보로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인 유승민 전 의원은

동면을 마치고 곧 기지가개를 켜다.

유 전 의원은 오는 16일 여의도에 '희망22'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 준비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이어 26일에 마포포럼에도 나서며 자신의 비전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이 유 전 의원의 행보에 함께 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설득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시장에서 인지도 높은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은 여당에 대적하려면, 야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도가 승리 가능성이 있다"며 "안 대표와 선을 그은 김 위원장이 당 내 추천을 많이 받고



있는 유 전 의원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전 의원이 사무실에서 개최할 첫 세미나의 주제는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다루며 민심 끌어안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유 전 의원은 측근들을 통해 서울시

장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이름에 포함된 숫자 '22' 역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의미하고 있어 유 전 의원의 목표가 대선임을 드러낸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방미 일정 이야기하는 송영길 한반도 TF 단장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송영길 단장을 비롯한 김한정, 윤건영의원이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참모진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송영길, 윤건영 의원.

서동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을 비롯해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 등 나라 곳곳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로 모든 정부 사업의 관문으로 꼽히고, 그중 계수조정소위로 불리는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하는 곳이다. 이번 소위는 여당 9인, 야당 6인으로 구성됐고 12일 의결됐다.

서동용 의원의 소위 배정으로 광양항 발전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철강산업 활성화, 수소생산기지 클러스터 사업, 남중권 국립과학관 건립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뿐 아니라 전남의 주요 사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소위 구성이 의결되자, 서동용 의원은 "예결위 소위는 지역구 의원 모두가 선망하는 곳인데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野, 추미애 향해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더러운 성질"

秋, '정도껏 하시라' 정성호에 "민주당 동지" 편지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동지라고 쓴 페이스북 글을 놓고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 '더러운 성질' 등의 글로 비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정성호 국회 예결위위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고 '민주당 동지'라고 불렀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상임위원장의 견제 행위를 당내 동지 관계로 들어 역공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정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추 장관에 상임위원장으로 본분을 다했고 그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그런데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국무총리 지휘는 무시하고 있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선 내가 여당 대표였노라"라고 받아치고 있다. 국기 문란이자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추 장관 본인의

자중이나 정상성 회복은 기대할 수 없으니,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시를 묵살한 추 장관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또 "문 대통령에 묻는다. 추 장관의 언행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추 장관의 행태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 "참 모질고 집요하고 대단한 성격이다. 이 정도면 특이한 성격이 아니라 더러운 성질"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님이 동지라고 부르며 정성호 예결위위원장을 소환하길래, 예산심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질문과 상관없이 학생 가르치듯 장광설 풀었던 걸 사과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역시나'였다"고 적었다.

이어 "사과는 형식일 뿐, 전체 내 용은 오히려 국회에서 제지당해 못했던 그 장관설 훈계를 결국 길게 늘

어놓았다. 절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이다. 야당 의원과 전투를 벌이지 말고 답변을 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대단한 성격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동지라고 부르며 사과는 시늬일 뿐, 결국은 자신의 정당성 강조와 야당 비난을 성질대로 끝까지 퍼붓기 위한 수단으로 정성호 의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문구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괴롭혀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국회 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불 때 우리 국가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 없다.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박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욕까지 퍼붓고 모욕을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괴감도 들고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